

전 남

다도해 섬지역 '녹색 숲' 되살린다

방목가축으로 인해 훼손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섬지역 생태계가 복원된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사무소(소장 김상식)와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각각 20여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달초부터 도서지역의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서 녹색숲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양 사무소는 주민들과 함께 도서지역의 방목가축 없애기를 비롯해 도서지역 훼손지 및 상록 활엽수림 복원, 군부대 초소 등 경관 저해시설 철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보길도 부속도서인 치도에서 방목 중인 염소 7마리를 그물로 포획했다.

염소 등 방목가축 포획하고 활엽수림 심기

군부대 초소 등 철거... 생태계 복원 추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역시 최근 흑산도 옥섬에 위치한 1970년대에 세워진 폐정자를 철거했다.

유·무인도에 방목된 염소는 섬에서 자라는 다양한 종의 나뭇잎은 물론 뿌리, 줄기까지 갉아먹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방목염소와 토끼 등 90마리를 포획한데 이어 올해도 관내 10개 도서에 200여 마리가 있는 것

로 파악하고 포획하기 좋은 가을~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방목염소 303마리를 포획했으나 여전히 1천8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훼손지 복원사업은 사전에 자생하는 식생을 현지조사한 후 이에 맞춰 주변으로 지목되고 있다. '녹색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도서 녹색 숲 복원사업은 도

서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방목 가축에 의해 훼손된 섬지역 숲은 도서환경에 적합한 상록활엽수림을 심는 등 지속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시 돌산면에 이르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지난 1981년 12월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보길·청산·소안·여수·고흥·거문도, 서부사무소는 흑산도·홍도·비금·도초·조도에 각각 분소를 두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신안=조영희기자 wncho@



국토순례 '한걸음 한걸음'

해남군은 땅끝이 국토순례 일번지로 부상함에 따라 옛길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순례 출정식을 마친 대학생들이 지난 26일 회양의 시차적인 해남 송지면 갈무리 '땅끝'을 출발해 순호해수목장 인근을 힘차게 걷고 있다. <해남군 제공>

순천 성장동력 자전거산업 '탄력'

시·업체 마그네슘 단지 보세구역 지정 추진

순천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자전거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27일 순천시 해변면 신소 재기출산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노관규 순천시청, 이문경 여수세관장, 임경태 알레닉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그네슘 단지 보세구역 지정 협약을 가졌다.

중 육성하고 있는 자전거 업체들이 입주 중인 순천 마그네슘 단지(해룡산단)를 종합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단계별 특화된 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그네슘 단지 보세구역 지정 협약을 순천시가 성장산업으로 집

보세구역 지정시기는 자전거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알레닉스 등 14개 기업이 입주한 마그네슘 단지 내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 등 모든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으로 했다. 순천시는 또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해 마그네슘 단지를 '고강도 마그네슘을 이용한 경량 자전거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지시경제부에 신청, 지난 21일 지역 전략진흥사업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녹동~거문도 '평화훼리 9호' 취항

고흥 녹동~거문도간 항로에 차량 운송 전용 여객선 '평화훼리 9호'(220t)가 27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주)평화훼운이 운영하는 '평화훼리 9호'는 승객 165명과 차량 34대(승용차 기준)를 수송할 수 있다.

최대속력은 16노트로 기존 여객선(평화훼리 5호)보다 30분이 단축된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녹동에서는 오전 7시, 거문도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며, 요금은 승용차 기준 편도 7만3천700원, 여객은 성

인 2만2천500원이다. 이번 신규 여객선 취항에 따라 거문도에 생생해지는 갈치 등 농수산물과 생필품의 반입·반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훼운 이우암 대표는 "차량과 화물뿐 아니라 승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빠른 속도에 초점을 맞춰 여객선을 건조했다"며 "다도해수선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바다의 풍광을 선상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목포, 해양레저의 꽃 피운다

요트 마리나 준공... 50피트급 32척 정박

목포항에 50피트(ft)급 요트 32척이 정박할 수 있는 요트 마리나 시설(사진)이 준공됐다.

목포시는 '해양레저의 꽃'으로 불리는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해 삼척도 목포 내항에 4년간 70억원을 투입해 50피트급 요트 3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유식 요트 계류장과 클럽 하우스, 요트 인양기, 레포츠 교육장, 육상 주차장, 주차장 등을 갖춘 마리나 시설 공사를 끝내고 28일 준공식을 갖는다.

시는 이곳에 1천여원을 더 투입해 요트 전용항으로 개발하고 초·중·고 운영연합회 회장, 전문건설협회 전남도 부회장, 전남산악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시는 10억 5천만원을 들

여 내년 취항을 목표로 51피트급 쌍승선 세일링 보트 건조에 들어갔다. 시는 요트 마리나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요트 조종면허 취득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요트스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도 유치할 방침이다. 이번엔 완공된 요트 마리나는 향후 1천여원 규모의 삼척도 요트 전용항 개발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중득 목포시장장은 "목포 마리나 부항에 어선 전용부두를 만들어 내항 어선을 오는 2011년까지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새 일곱

"통일운동의 중심적 역할 수행 최선"

이상현 민주평통자치문회 목포시회장

"지역민들과 함께 통일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선임된 이상현(59) 제 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목포시협의회 회장은 "일찍이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에도 앞장서 존경받는 민주평통을 실현하

겠다"고 다짐했다. 목포 출신인 이 회장은 목포 초·중·고 운영연합회 회장, 전문건설협회 전남도 부회장, 전남산악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and a list of agents at the bottom.